

Submicron Cu-Ni-Zn 페라이트의 전자파 흡수특성 (Absorbing Properties of Electromagnetic Wave on submicron Cu-Ni-Zn Ferrite)

한양대학교 정재우*, 이완재

1. 서론 : 전자파 흡수체는 전자파를 흡수하여 반사계수가 특정치 이하의 값을 갖도록 설계된 재료를 일컫으며, 여러종류의 전자파 흡수체중 자성손실재인 페라이트는 전기 저항이 크기 때문에 고주파 영역에서 잔류 손실(residual loss)이 전체 손실 중 큰 부분을 차지하며, 사용 주파수 대역이 높아지면 자벽(domain wall)의 이동 속도가 빨라지므로, 이로 인한 자벽의 이동이 위상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¹⁾. 따라서 페라이트 입자의 크기가 작고, 일정해야 전자파 흡수특성이 향상된다. 유성볼밀(planetary mill)에 의한 기계적인 분쇄는 단시간내에 손쉽게 1 μ m 이하의 미립분말을 얻을 수 있다.

본 연구에서는 Cu-Ni-Zn 페라이트분말을 유기산염 열분해법의 장점과 유성볼밀의 장점²⁾을 이용하여 submicron의 페라이트분말을 얻고, 유성볼밀의 조건과 소결온도와의 관계로 관찰하여 미세조직이 전자파흡수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 검토하였다.

2. 실험방법 : 유기산염 열분해법으로 Cu-Ni-Zn 페라이트분말을 합성한 후 700 $^{\circ}$ C에서 1시간 대기중에서 하소하였다. 하소 후 분말을 유성볼밀기에서 3mm ϕ 와 5mm ϕ 알루미나 볼을 사용하여 100r.p.m.과 150r.p.m.속도로 1시간 동안 회전시켜 분쇄하였다. 분쇄한 분말을 Laser 입도분석기로 측정하고, SEM으로 관찰하였다. 100MPa의 압력으로 성형한 후 1100~1250 $^{\circ}$ C에서 1시간동안 대기중에서 소결하였다. 전자파흡수특성은 HP8720 Network analyzer를 이용하여 투과반사법으로 페라이트의 상대복소유전율과 상대복소투자율을 구하고, 이들 값으로부터 흡수능을 계산하였다.

3. 결과 및 고찰 : 하소 후 유자막으로만 분쇄한 분말은 다수의 미립분들이 응집되어 있지만 약 1700nm정도의 평균입도를 갖고있는 반면에 유성볼밀기를 사용하여 3mm ϕ 알루미나 볼을 사용하여 100r.p.m.의 속도로 1시간 분쇄한 것은 레이저 입도분석기에서 약 550nm의 평균입도로 측정되었으나, SEM상의 관찰에서는 100nm미만의 초미립분의 응집으로 150nm의 평균입도를 갖고 있었다. 소결체의 밀도는 소결온도가 상승하면 증가하였으며, 3mm ϕ 볼로 150r.p.m.의 속도로 분쇄한 400nm의 분말을 1150 $^{\circ}$ C에서 1시간 소결한 시편이 5.05g/cm³로 가장 높은 밀도값을 나타내었다. 1200 $^{\circ}$ C에서 소결한 시편의 미세조직은 5mm ϕ 볼로 150r.p.m.의 속도로 분쇄한 200nm의 분말을 사용한 경우 입자가 가장 미세하였다.

복소투자율값은 3mm ϕ 볼로 150r.p.m.의 속도로 분쇄한 400nm의 분말을 사용한 경우가 어느 소결온도에서나 전부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. 1200 $^{\circ}$ C에서 소결한 경우 50MHz에서 상대복소유전율은 11.71-0.01j이고, 상대복소투자율은 75.63-111.58j이었다. 손실을 나타내는 허수값이 크게 되었다. 임피던스가 정합이 되는 두께는 4.85mm이며, 전자파흡수능은 측정 주파수인 50~2000GHz 전역에서 10dB 이상이며, 정합주파수는 283MHz이고, 흡수능은 66dB였다. VHF/UHF대역의 큰 흡수특성을 갖는 전자파 흡수체로서 사용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된다.

4. 결론 : 유기산염 열분해법으로 합성한 후 유성볼밀로 분쇄하면 sumicron의 균일한 페라이트 분말을 얻을 수 있다. 밀도가 높고, 미세한 입자를 가진 경우에 높은 전자파 흡수능값이 얻어졌고, 이 때 시편의 정합두께는 4.85mm이며, 283MHz의 정합주파수에서 66dB의 큰 전자파 흡수능값이 얻었다.

5. 참고문헌 :

- 1) 清水 康敬, 杉浦 行, 石野 健, 乾 哲司 : 電磁波の吸収と遮蔽, 日經技術圖書株式會社, (1989) 3, 121
- 2) T.Asaka, Y.Okazawa and K.Tachikawa : J.Japan Inst. Metals, 56 (1992) 715